1200년 긴 잠서 깬 청량 국사 〈화엄경 소초〉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총 230권 완역

10년 7개월 동안 번역해
8월 1일 완역 순간 맞아
가장 방대한 화엄경 해설서
"전 세계서 처음 있는 일"

"장대한 광장설에는 한 글자도 없었고, 사사무애 진실한 뜻에도 또한 한 뜻도 없었다. 능전과 소전이 함께 사라진 때에, 시간 밖의 한 경전이 영원히 광명을 놓는 도다."

8월 1일 오후 11시 57분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펜을 놓으며 위 게송을 읊었다. 10년 7개월 동안 번역해 온 〈화엄경 청량소초〉를 완역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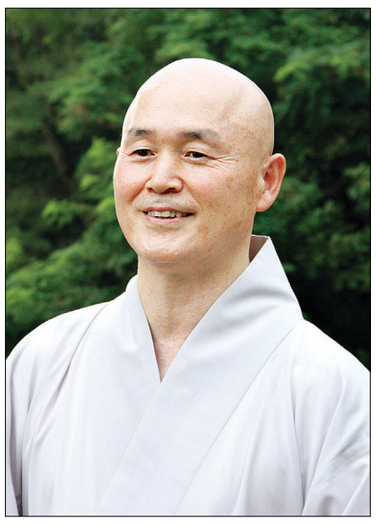
〈화엄경 청량소초〉는 중국 당나라 화엄종 제4대 조인 청량 국사(澄觀, 737~838)가 저술한 논서로 화엄경 80권을 본으로 삼고 소가 60권 초가 90권, 총 230권인 가장 방대한 화엄경 해설서다. 우리나라엔 1000여 년 전 들어왔지만 전통 강원서 가끔 사용될 뿐 번역된 바가 없었고,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진다.

수진 스님은 이번 번역 작업에 대해 '은혜를 갚는 일'이었다고 소회했다. 스님은 "이 논서를 완역함으로 부처님과 은사이신 문성 스님, 그리고 부모님께 그 은혜를 갚은 것 같다"며 번역을 시작한 또 다른 이유로 "화엄 사상이 곧 현시대 불교와 사회의 답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진 스님은 "화엄 불교가 살아났을 때 한국 불교가 살아난다. 이는 소통이 필요한 한국 사회에 답이 될 것"이라며 "화엄은 화쟁 사상으로 종단 안팎에 상생을 제시하고, 노사 간의 대립 등 여러 사회 문제에도 답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번역본이 없던 것은 청량 스님의 글을 해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번 번역은 우리나라 종단의 자존심이자, 불자들에겐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경 청량소초〉는 양 뿐만 아니라 불교와 인문학적 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수진 스님은 "불세출의 걸작인 〈화엄경 청량소초〉는 동양 사상서도 종합대백과 사전과 같은 책이다. 대승불교 뿐 아니라 선종과 초기불교까지 인용해 내용을 다루고 있어 불교의 전반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자와 장자, 유교의 사서삼경과 제자백가, 주역까지 모두 동원해 저술한 책이며, 천문학과 지리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비종교적 부분서도 인문학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지난 8월 1일 〈화엄경 청량 소초〉 번역을 마무리했다. 이 책은 불교 뿐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앞으로 책이 출간 되면 화엄경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스님은 이번 번역본이 책으로 출판되기 위해선 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10만매에 달하는 방대한 원고를 정리하고, 출판에 필요한 편집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진 스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관하는 '병신년 재가 안거 하안거'가 오는 8월 17일 해제한다. 해제법회는 참가 단체 및 각 조계종 사찰서 각기 진행하며, 그동안의 수행과 성과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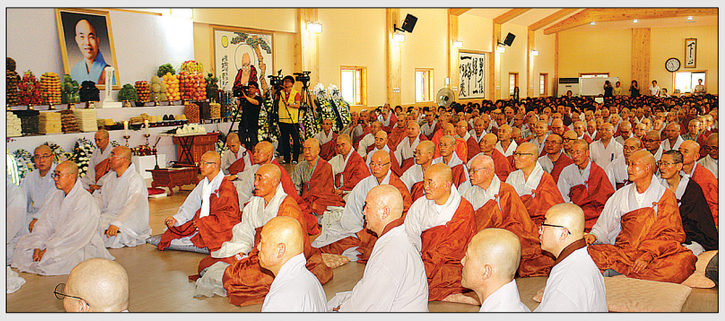
2014년 동안거를 시작으로 열린 조계종부산연합회 재가안거는 매년 동안거와 하안거 두 차례 안거철에 맞춰 진행된다. 2014년 당시 16개 조계종 사찰서 1500여명이 함께 동참했으며, 현재 포교사단 및 조계종 19사찰 2000여명이 입재해 수행 풍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진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전국승가대학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재편찬위원회 위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 제11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해인정사 주지이며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석좌교수,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포산당 혜인대종사, 49재 회향법회

8월 10일 은해사 수련관 육화원서


포산당 혜인대종사의 49재 회향법회가 8월 10일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서 봉행됐다.

은해사 조실 포산당 혜인대종사의 49재 회향법회가 8월 10일 은해사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서 봉행됐다.

원명 스님이 집전을 맡은 이날 법회는 관욕 및 사시마지 예불에 이어 생전 육성법문, 종사 영반, 헌화와 헌향,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인연에 따라 생과 사가 윤회로 돌아가고, 당당한 자성 그 자리서 참면목을 볼 수 있으니 바로 이 도리를 깨쳐 알아가자"는 법문을 했다.

제10교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큰 스님 가신 자리가 너무 크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겨서 우리 후학들이 더 발전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원적한 큰스님을 예경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해인총림 전계사 종인 스님, 해인총림 율학승가대학 원장 서봉 스님, 백양사 회주 법안 스님, 동곡문도회 대표 혜국 스님,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 관장 돈명 스님 · 주지 돈관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해 혜인 스님을 추모했다.

포산당 혜인대종사는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한 평생 신심과 원력의 삶을 표상하며 수행정진 했다. 2012년 은해사 조실로 추대됐으며, 지난 6월 23일 은해사 기기암 선원에서 세납 75세, 법랍 62세로 원적에 드셨다.

한편 은해사 동곡문도회는 혜인 스님의 재비를 절약해 마련한 2000만원을 승가복지기금으로 써달라며 동국대 의료원에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쌍계사, 자비와 평화 기원하는 방생대법회

8월 19일 오전 9시 30분 고성 당항포에서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원정)는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제 26회 자비방생 대법회'를 8월 19일 오전 9시 30분 고성 당항포 공룡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쌍계사가 주최하며 제13교구 본말사암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쌍계사 방장 고산 대종사를 비롯해 제13교구 본말사암 소속 54개 사찰 및 신도 25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식 선언에 이어 헌화, 대회사, 고산 대종사의 법어,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방장 고산 스님을 비롯한 동참 대중 전원은 물고기를 방생하는 의식을 가지며 평화를 기원한다. 쌍계사는 "방생을 통해 일깨운 자비심은 평화의 근본이며,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계사는 지난 1992년부터 매년 하안거 해제 직후 자비방생 대법회를 봉행해 왔다.

하성미 기자

음악과 함께 부처님 말씀 들으며 '더위 탈출'

통도사, '음악과 함께하는 부처님 말씀' 개최

푹푹 찌는 여름 더위를 피해 '쉼'을 찾아 통도사(주지 영배)를 방문한 사람들이 영축산 계곡을 가득 채웠다. 삼삼오오 모인 가족들은 나무 그늘 아래 땀을 식혔고, 시원한 물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졌다.

더위를 피해 산중을 찾은 이들을 위해 통도사가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했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8월 7일 경내 해장보각 앞 쉼터서 '음악과 함께하는 부처님 말씀'을 개최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신도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은 관현악단의 음악에 맞추어 통도사 총무국장 도문 스님이 〈법구경〉의 말씀을 들려줬다.

총무 국장 도문 스님은 "법구경은 누구나 편하게 듣고 접할 수 있는 내용이며, 마음 깊이 울림을 주기에 선정했다"며 "음악과 함께 스님이 직접 읽어 주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에 시원함과 함께 참된 휴식을 안겨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도사는 경내 해장보각 앞 쉼터에서 '음악과 함께 하는 부처님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가 시원한 여름 선물과 같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흥균(대전 · 53) 씨는 "시원한 휴가를 위해 가족들과 통도사를 찾았는데, 음악도 나오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더욱 색다르다"며 "기대치 않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행복하다"고 했다.

이현옥(부산 연지동 · 62)씨는 "너무 더워 힘이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며 행복을 얻었다"며 "법회서 듣는 법문도 좋지만 이렇게 음악과 함께 들으니 진정한 쉼을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음악과 함께 하는 부처님 말씀'은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에 진행되며 관현악단, 클래식, 성악곡 까지 다양한 곡들이 마련된다. (055)382-7182

하성미 기자

허 왕후 고향, 인도 첸나이서 온 학생들

국제 청소년 예술제 참가 위해… 불교 유적지 관람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州)의 주도 첸나이는 허황옥 왕비의 고향으로 알려진다. 문헌에 따르면 허 왕후는 부산 김해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과 결혼했다. 가야국에 올 당시 함께 온 장유화상(허황옥 왕후의 친 오빠)은 스님으로 가야국에 최초로 불교를 알렸다고 한다.

허 왕후의 고향 인도 첸나이시 아요디아서 청소년과 학부모 및 교사 20여명이 8월 4~9일 한국을 방문했다. (사)K-ART국제교류협회(이사장 허숙)가 주최하는 '2016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방문단은 일정 가운데 김수로 왕릉 및 범어사, 경주 불국사, 흥법사, 안국선원 등 사찰과 유적지를 찾았다. 한국의 불교문화를 접하고 허황옥 왕비의 발자취를 찾기 위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한국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특히 채식만 고집하는 이들은 사찰 음식에 찬사를 보냈다.


인도 학생들이 가야 김수로 왕의 유적지를 관람하고 있다.

쉬리야(15) 학생은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을 보며 허 왕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불교 전파 경로를 알게 되니 한국이 더욱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말했다.

허숙 K-ART국제교류협회 이사장은 "인도 학생들이 미술 교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라 더욱 뜻 깊다"며 "허 왕후로 인해 맺어진 인도와 가야의 인연과 한국의 불교를 보여주니 그들에게 더욱 감동적인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실상예불선으로...

불자 여러분 이땅의 아픔과 갈등의 치유를 발원하옵니다.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部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생야일편무운기)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채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오.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없어짐이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것 죽고 살고 오고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출처 : 서산대사해탈의시

영가(정신착란증)에 시달리면 고생하시는 분
사람이면서 사람 행동을 못하시는 분은
실상예불선을 받들어 수지 독송 하시며
부정을 긍정으로 불안한 마음을...

1. 관찰한다
2. 영적인 본질을 보는것
3. 부처님은 다알고 계신다.
4. 계속되면 스님을 친견하기시 바랍니다.

예약 : 총무 010-4566-4504



(社)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성도 jogyejong.kr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 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 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 본 디스크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51)442-5658]

감 독 : 관음 박몬비
조감독 : 무념 도감원, 천곡 강모종
사진촬영 : 보교기획
제 작 : (주)예인미디어 / 녹 음 : 그냥해 STUDIO
기 획 : 유심스님 / 요 령 : 봉덕스님
목 탁 : 혜명스님 / 염불선, 징 : 유심스님

판매처 : 부산불교전시관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번지 / ☎ 051)644-8092